

# INTERNI

& Decor



TRADE SHOW

**CERSAIE 2025**

THEME

감성적 치유 공간

**Medical Spaces**

DESIGNER SPOTLIGHT

**Ippolito Fleitz Group – Identity Architects**

우수콘텐츠잡지  
2025

NOVEMBER, 2025



주요 프로젝트

Poggenpohl Shanghai  
Restaurant Spring Feast  
Casa Mosaico de Belas Artes



Poggenpohl Shanghai

## 삶을 담아내는 디자인의 조건 Ippolito Fleitz Group – Identity Architects

이폴리토 플라이츠 그룹은 디자인을 고정된 산물이 아닌 삶을 담은 조건이자 관계와 경험을 만들어가는 매개로 정의한다. 스스로를 '아이덴티티 아키텍트'라 칭하며, 공간 안에서 인간의 경험과 감각을 우선시하고 맥락에 맞는 해석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대화를 만들어간다. 그들의 작업은 특정한 양식이나 공식보다 호기심과 낙관,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이들의 디자인은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포용하며,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인간 경험을 중심에 두는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2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피터 이폴리토 (Peter Ippolito)와 군터 플라이츠(Gunter Fleitz)가 함께 설립한 이폴리토 플라이츠 그룹(Ippolito Fleitz Group)은 창립자의 이름을 나란히 내세운 명칭에서부터 협업과 대화라는 가치를 강조해왔다. 두 사람은 회사를 특정한 개인의 목소리로 정의하기보다 서로의 관점을 교차시키며 디자인을 확장하는 집단적 실험의 장으로 만들고자 했다. 독일 베를린과 슈투트가르트, 중국 상하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이폴리토 플라이츠 그룹은 스스로를 '아이덴티티 아키텍트 (Identity Architects)'라고 소개한다. 이는 단지 건축적 오브제를 창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이 펼쳐지는 조건을 설계하는 데 무게를 둔다는 뜻이다. 디자인



Casa Mosaico de Belas Artes



Peter Ippolito & Gunter Fleitz



Casa Mosaico de Belas Artes



Casa Mosaico de Belas Artes



Restaurant Spring Feast



Restaurant Spring Feast

을 고정된 산물로 바라보지 않고, 관계와 경험, 그리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살아 있는 매개체로 다루는 태도다. 결국 이들의 작업은 공간과 환경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비추고, 그 안에서 이야기와 의미가 생성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한다.

이들이 공간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주목하는 지점은 '사람의 경험'이다. 형태나 재료보다 우선하는 질문은 이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머물며,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하는 것이다. 건축과 인테리어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삶을 담는 틀이지 그 자체로 완결된 산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공간은 소속감을 일깨우고, 명확한 질서를 제안하며, 영감을 촉발해야 한다. 그들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사물과 사물 사이에서 전환과 만남, 공기와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감각을 발견하며, 이를 통해 단순한 시각적 인상 이상의 연결과 대화, 웰빙을 제공하는 환경을 설계한다.

이플리토 플라이츠 그룹의 차별성은 업계에서의 입지를 규정하는 데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삶에 목소리를 보태는 것이다. 이들의 작업은 유형이나 분야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디자인이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원칙으로 삼는다. 고정된 공식이나 시그니처 스타일을 따르지 않고, 매 프로젝트를 그 맥락과 사회적 문화적 조건에 맞는 독립적인 해석으로 풀어낸다. 다만 이 모든 작업을 연결하는 것은 늘 깨어 있는 호기심과 낙관,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태도다.

이들이 공간 디자인에서 느끼는 매력은 '대화'에 있다. 클라이언트의 비전과 맥락, 그리고 그 공간이 사용자에게 어떻게 말을 거는가 언제나 중심이다. 공간은 모든 감각을 자극하며 몰입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만큼 그 자체로 정체성과 기분, 세계와 연결되는 방식을 규정한다. 따라서 공간 디자인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을 함께 빛어내는 설득력 있는 대화의 과정이다.

앞으로의 방향 역시 이 철학의 연장선에서 있다. 전 세계가 가속화된 변화를 겪는 오늘날, 변화의 현장 어디에서든 디자인의 역할은 살아 있다. 아이덴티티 아키텍트로서 그들은 디자인의 대상뿐 아니라 디자인의 방식, 그리고 디자이너라는 존재 자체가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환영한다. 인공지능, 기후 변화, 지정학적 긴장은 전통적인 디자이너의 개념을 도전하고 있지만, 그들의 태도는 언제나 사용자와 사회를 위한 대변인으로 남는 것이다. 다문화적 교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결코 인간 경험과 의미, 그리고 디자인의 본질적인 관련성을 희생하지 않는 길을 택하고자 한다.



Poggenpohl Shanghai



사교와 소통의 허브로 기능하는 주방을 위해 대형 테이블이 중앙에 놓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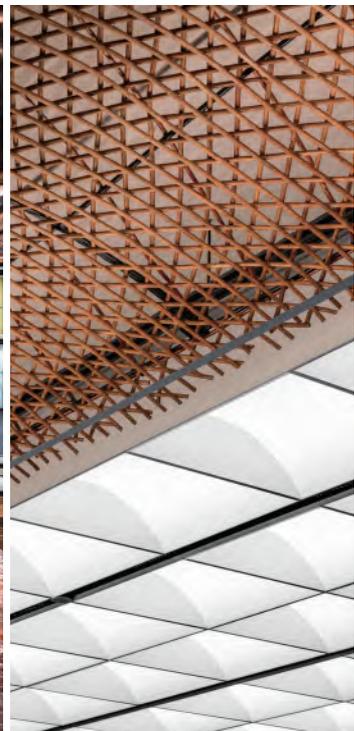


## 주방은 일상의 중심 Poggenpohl Shanghai Experience Center

Location / 상하이, 중국  
Area / 460m<sup>2</sup>  
Photograph / ZHUDI@SHADØO PLAY

포겐폴(Poggenpohl)은 독일을 대표하는 '메이드 인 독일'의 품질과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주방 디자인을 상징하는 이름이다. 상하이 중심부에 문을 연 포겐폴 상하이 익스피리언스 센터는 이러한 철학을 한층 더 확장한 실험적 공간이다. 디자인의 출발점은 '주방은 일상의 중심'이라는 명제였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교류하며, 즐거움을 나누는 주방은 사교와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한다. 이에 공간 한가운데 놓은 대형 테이블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감정적 무대로 확장됨을 보여준다.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건조된 꽃으로 구성된 인상적인 설치작품이다. 이어 나타나는 녹색 톤의 아치 구조는 공간 속 강렬한 포인트가 되며, 그 너머로는 정교하게 직조된 라탄 천장이 펼쳐진다. 라탄은 전통 공예로 유명한 중국 저장성(Zhejiang)에서 들여온 소재로 재료 실험실(Material Lab)을 감싸는 지붕처럼 확장된다. 쇼룸의 중심 영역에 다가서면 밝은 조명이 격자 형태로 배열된 천장이 드러나며, 공간 전체에 생동감 있는 긴장을 더한다.



입구에 들어서면 건조된 꽃으로 구성된 설치작품이 눈길을 끈다.





▲ 벽과 같은 물리적 경계를 최소화하고 열린 구조로 설계했다.

이곳은 방문객이 머물며 특별한 경험을 얻는 장소로 '무엇을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으로 전환시키는 장치다. 이를 위해 벽과 같은 물리적 경계를 최소화하고 열린 구조를 택했으며, 교차하는 시각적 관점에 따라 공간은 끊임없는 전환과 발견의 기회를 선사한다. 각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요리, 생활, 사교 방식에 대해 탐색하게 하며, 개인적인 해석과 경험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 천장 공간을 포함한 수직적 요소는 흐르는 공간에 리듬과 구획을 부여한다. 시선이 이동할 때마다 대비와 복합성이 드러나며, 다음 전개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모든 영역은 일정한 밀도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디테일과 전체 스케일을 아우르는 서사는 포켓폴이 약속하는 품질과 직결된다. 큰 그림에서 작은 디테일까지 이어지는 이 여정은 장인정신을 감각적으로 체험하게 한다. 현대적인 주방은 고도의 기술성과 자연 친화적 요소가 공존하는 영역이다. 스마트 홈과 첨단 기술이 건강한 삶과 자연에 대한 갈망과



건조 꽃과 식물 같은 자연의 흔적을 겹쳐 감각의 균형을 이끌어냈다.



맞물리며, 정밀성과 자연스러움은 함께 어우러진다. 공간은 이러한 상반된 요소들을 조율해 표현했다. 독일 주방 브랜드로서 포겐폴이 강조하는 기술적 정밀함은 기하학과 추상적 질서로 공간화했고, 이에 건조 꽃과 식물 같은 자연의 흔적을 겹쳐 감각의 균형을 이끌어냈다.



천장 공간을 포함한 수직적 요소는 흐르는 공간에 리듬과 구획을 부여한다.





온천의 물성과 자연의 흐름을 곡선에서 출발해 디자인했다.



## 물의 흐름을 닮은 공간 Restaurant Spring Feast

Location / 허페이, 중국  
Area / 1,390㎡  
Photograph / One Thousand Degrees IMAGE

차호우(Chaohu) 반탕(Bantang) 온천의 풍경 속에 들어선 레스토랑 스프링 피스트는 온천의 물성과 자연의 흐름을 곡선에서 출발해 디자인했다. 외관은 자연 지형의 연장처럼 유기적으로 이어지고, 내부 또한 곡선형 건축 언어를 받아들여 마치 산 속 동굴이나 온천의 기원을 떠올리게 한다. 빛이 풍부하게 스며드는 구조는 개방적이면서도 아늑한 분위기를 선사하며, 공간 이동에 따라 끊임없는 전환과 발견을 경험할 수 있다. 입구에서 이어지는 두 갈래 동선은 명나라의 기록에 등장하는 '뜨거운 샘과 차가운 샘'이라는 역사적 서술에서 착안했다. 넓은 계단과 갤러리형 라운지를 따라 이어지는 길은 서로 다른 시퀀

곳곳에 마련한 아치와 곡선 공간은 자연의 원형을 반영한다.





갤러리형 라운지



▲ 빛이 풍부하게 스며드는 구조는 개방적이면서도 아늑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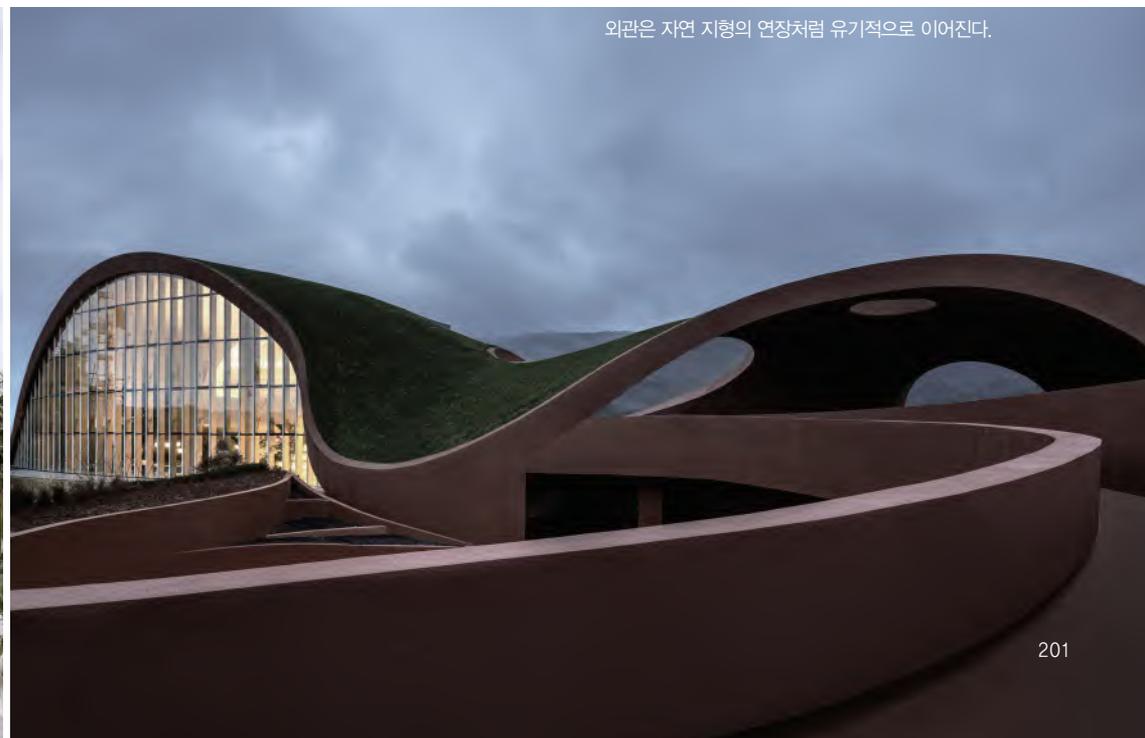
스를 제시하다가 레스토랑 중앙에서 다시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방문객은 풍경과 실내를 교차 경험하며, 공간을 하나의 이야기처럼 따라가게 된다.

실내는 층위와 중첩을 통해 리듬을 완성한다. 커다란 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은 외부의 산수와 내부의 다이닝 장면을 연결하고, 창가에 자리한 좌석은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프레임이 된다. 바닥은 흙빛과 짙은 톤이 교차하는 투톤 패턴으로, 동선과 식사 공간을 자연스럽게 구분하며 시각적인 깊이를 더한다. 전체적으로 레스토랑은 풍부한 녹색을 주조로 삼아 숲의 수관을 닮은 생명감을 공간 전반에 확산시켰다.

곳곳에 마련한 아치와 곡선 공간은 자연의 원형을 반영하며, 건축적 요소와 인테리어 디테일이 어우러져 통일감을 이룬다. 특히 입구의 건조 꽃 설치물과 저장성(Zhejiang)에서 온 라탄 천장은 자연적 질감을 실내로 끌어들이는 장치가 되며, 지역성과 세계적 디자인 감각을 동시에 담아낸다. 마지막으로 실내 바(Bar)에는 작은 로봇 바리스타가 등을 지키고 있다. 변함없는 속도로 커피를 내리는 이 장치는 공간의 차별한 리듬을 시각적으로 은유하며, 온천수처럼 일정하게 흐르는 시간의 의미를 공간 경험 속에 스며들게 한다.



바닥의 투톤 패턴은 동선과 식사 공간을 자연스럽게 구분한다.



외관은 자연 지형의 연장처럼 유기적으로 이어진다.



▲ 거실과 다이닝홀은 전통적 태피스트리, 현대적 조명 작품, 고전적 조각과 수공 가구가 함께 배치되어 있다.

## 예술적 작품이 모인 집 Casa Mosaico de Belas Artes

Location / 포르투갈  
Area / 685㎡(주거), 920㎡(대지)  
Photograph / Philip Kottlorz

아름다운 예술의 모자이크 하우스는 다양한 레이어가 중첩된 공간적 실험으로 완성되었다. 주거자의 성격과 기억이 녹아든 인테리어는 공간 그 자체가 이야기를 담아내는 장치로 기능한다. 은신처이면서 동시에 전시와 무대의 성질을 동시에 갖춘 모자이크 하우스의 각각의 방은 독립된 세계를 보여주면서도 전체를 연결하는 다층적 구조 안에서 생생한 흐름을 만들어낸다. 최상층의 남성 공간은 여행지에서 수집한 기념품과 다양한 문화권의 오브제로 집약된 장면이다. 티베트



최상층의 남성 공간은 여행지에서 수집한 기념품과 다양한 문화권의 오브제로 채워졌다.



▲ 자연의 패턴과 패브릭으로 가득해 편안함이 배가된다.

의 싱잉볼, 대리석 테이블, 멕시코 조명, 이탈리아 가구가 자연스럽게 교차하며 하나의 콜라주 같은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 구성은 가구와 오브제가 기능적 요소에 더해 공간 경험을 새롭게 완성하는 조율된 장치임을 드러낸다. 반면 1층 여성의 서재는 더욱 부드럽고 섬세한 톤으로 꾸며졌다. 차분한 색조와 유연한 곡선이 우아하게 어우러지며, 예술작품과 패브릭, 디자인 오브제가 병치되어 변화 가능성을 품은 유연한 공간 구조를 완성했다.

▼ 1층 여성의 서재는 더욱 부드럽고 섬세한 톤으로 꾸며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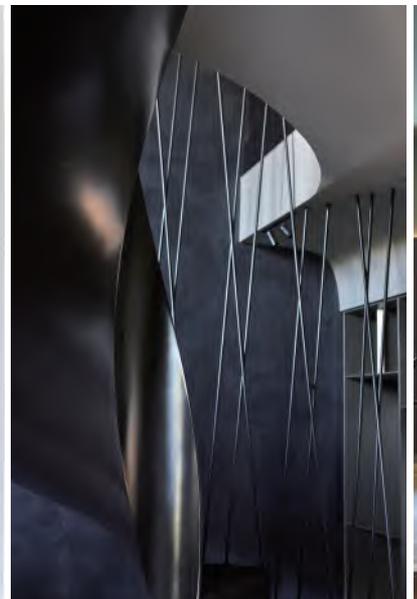
주택은 은신처이면서 동시에 전시와 무대의 성질을 동시에 갖추었다.



▲ 게스트룸도 투명, 반사, 불투명한 소재가 층위를 이루고 있다.



전체 건축의 공통된 언어는 '겹침과 투영'이다. 마스터 스위트에서는 거울면과 입방체가 직립하거나 매달려 시각적 경계를 허물어내고, 중첩되는 반사가 신비로운 공간감을 형성한다. 게스트룸 역시 투명, 반사, 불투명한 소재가 층위를 이루며 정교한 풍경을 만든다. 이중 높이를 가진 거실과 다이닝홀은 전통적 태피스트리, 현대적 조명 작품, 고전적 조각과 수공 가구가 함께 배치되며 강렬하고 다층적인 공간미를 드러낸다. 대형 책장은 천장 높이까지 이어지며, 가문의 보물과 책, 예술품들이 진열장처럼 배치되어 주거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또한 조형적 형태





▲ 화려한 색감은 주택의 특성을 강화한다.

를 강조한 계단과 타원형 오픈 공간은 다이닝 공간을 중심으로 자연광을 극대화하며, 수직과 수평의 흐름을 부드럽게 엮어낸다.

재료 선택 또한 콜라주적 성격을 반영한다. 흰색과 녹색 대리석이 깊이감을 주고, 질감이 살아 있는 패브릭은 따뜻한 촉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거친 석재와 블랙톤의 마루, 오닉스 대리석과 코르크 같은 대비 강한 조합은 공간을 역동적으로 이끌며, 디테일과 수작업을 통한 정교함은 서로 다른 재료를 완벽한 조율 속에 담아낸다. ▣

▼ 중첩되는 반사가 신비로운 공간감을 형성한다.



마스터 스위트 드레스룸과 욕실은 거울면과 입방체가 직립하거나 매달려 시각적 경계를 허문다.

